

“대한독립 만세 외치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려인마을 3·1절 104주년 행사

500여명 광산구 곳곳서 만세삼창 자랑스러운 항일 역사 직접 체험 독립투사 후손 위한 프로그램 계획

“대한독립 만세! 코리아 우라! (코리아 우라!)”

1919년 3월1일, 온 나라 온 국민이 외쳤던 만세 소리가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고려인마을과 광산구가 3·1만세 운동을 재현하고자 1일 흥남도공원에서 ‘1923 3·1만세운동기념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고려인마을에는 3·1절을 맞아 곳곳에 태극기가 즐비했다. 주민들은 3·1절 104주년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일본 순사 복장과 민족 지도자 복장을 한 일부 관계자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만세운동’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어린이들은 한 손에 든 태극기를 펴리며 독립투사 흉내를 내기도 했다.

한복을 입고 거리를 뛰다니던 박베로니카(14) 양은 “한국에 와서 마주한 첫 (3·1절) 행사다. 말로만 들었던 옛 선조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니 느낌이 정말 새롭다”며 “친구들과 함께 거리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니 3·1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활짝 웃었다.

특히 이날 행사의 백미는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시작해 흥남도공원까지 이어진



3·1절인 1일 광주 광산구 흥남도공원에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와 독립운동가 후손,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23 삼일만세운동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나건호 기자

‘3·1절 만세운동 재현 거리행진’이었다. 일본 순사 복장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곳곳에 나타나자, 약 500명의 시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만세 삼창 동안 모든 주민들은 저마다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던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다. 아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우즈베키

스탄 출신 장이나(43)씨는 “고려인들에게 광주와 3·1절이 주는 의미는 매우 남다르다. 만세 삼창을 하는 동안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었다. 가족과 함께 3·1절 행사에 참여해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3·1독립운동의 정신과 선조들의 업적을 알려줄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거리행진 이후 흥남도 공원에서 고려인마을극단 1937·호남대 태권도학과가 마련한 ‘그날 우리는’ 공연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을 압축한 감동적인 무대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탈북인 김춘화(71)씨는 “북에 있을 때

인민군 정치장교였다. 먹고 살만함에도 어렵게 탈북을 했던 이유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들었던 독립투사 할아버지 때문이었다”면서 “막상 남쪽에 오니,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행적조차 알 수 없었다. 오늘 행사를 통해 할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지나쳐오셨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북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생각나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전했다.

행사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의 ‘2023년 3월1일 비전선포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연해주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고려인들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고려인마을 관계자들의 포부도 남달랐다.

이천영 고려인마을 공동대표(목사)는 “이번 행사는 독립 선조들의 후손들이 직접 그들을 기리고 ‘잃어버린 국적’을 되찾자는 내용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몹시 큰 의미가 있다”며 “고려인들에게 3·1절은 설 명절보다 더 큰 기념일이다. 앞으로도 고려인 독립투사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한 민족으로서 더욱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마을이 준비한 ‘3·1만세운동’ 행사에 앞서 월곡고려인문화관 앞에서는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5·18조사위, 무연고 유해 1기 발굴... 암매장 확인중

옛 광주교도소 건너편서 발견 계엄군 진술로 7곳 지표조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계엄군의 진압작전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 암매장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옛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무연고 유해 1기가 발굴돼 확인 중

에 있다. 조사위는 지난달 28일 2022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암매장 발굴 사례와 진행 현황이 담겨 있었다. 조사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옛 광주교도소 일원 7곳, 화순너릿재터널 일원 1곳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 광주 북구 각화동 광주화물터미널 주변 야산에서 무연고 유

해 1구를 발굴했다. 현장 육안감식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여부를 확인 중이다. 유전자 검사는 기존의 STR(모계·부모 세대의 유전자 비교)방식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SNP(형제·자매·이종사촌 유전자 비교)방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행불자 가족들의 유전자 전체

(417명)와 대조해 그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위의 이번 암매장 조사는 5·18 당시 시내 일원에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들을 대상으로 방문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교도소 일원 7곳이 매장지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옛 광주교도소 내 5곳과 교도소 외 2곳을 특정해 지표조사 결과 교도소 외에서 신원미상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11공수여단 장

·사병 중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매장의 지시와 실행을 증언한 사람은 9명, 매장을 목격한 이는 13명, 매장사실을 들었던 사람은 35명이다. 조사위는 16명의 증언자를 동행해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조사위가 확보한 신원미상 유해는 290기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옛 광주교도소 개장 작업 당시 무더기로 나온 유해 중 1기는 5·18 실종자의 DNA와 일치해 암매장 진실이 처음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혜인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